제5강 오온과 12연기

(1교시)J_stJo01_030917_01

◎ 오온 (五蘊)

'色', '受', '想', '行', '識'으로 나눠 '해체'의 관점에서 인간경험을 분석한 것.

매 순간, 찰나마다 오온이 이루어졌다 사라지고 바로 다음 순간 새로운 오온이 이루어진다.

◎ 12처 (十二處)

인간은 나면서부터 5가지 감각기관(五感)으로 세상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인 5가지 감각기관에 마음(mind)을 더하여 '六入('眼(안)', '耳(이)', '鼻(비)', '舌(설)', '身(신)', '意(의)')'을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 육입 (六入)

6가지 입구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뜻.

-> 육경 (六境)

6入을 통해 들어오는 대상: '色(색)', '聲(성)', '香(향)', '味(미)', '觸(촉)', '法(법, dha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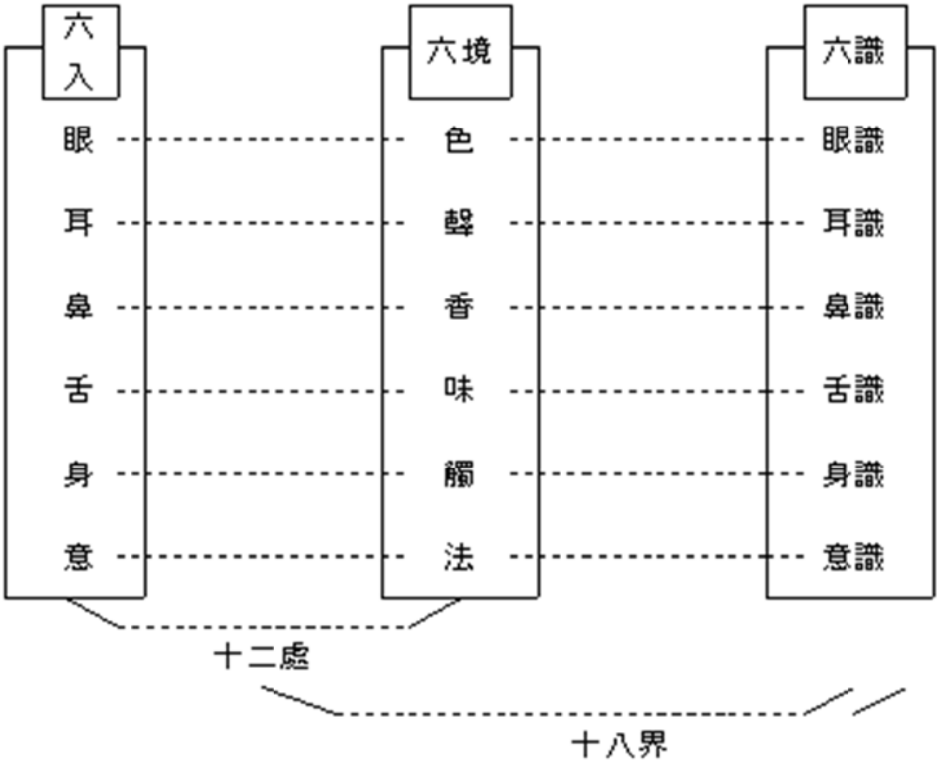
-> 六入과 六境을 합쳐서 '十二處'

'處'라 함도 감각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각각의 六入을 통해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각각의 入에서 '眼識(안식)', '耳識(이식)', '鼻識(비식)', '舌識(설식)', '身識(신식)', '意識(의식)'이 생기는데 이것을 六識이라 한다. 그리고 '六入', '六境', '六處'를 모두 합하여 '十八界'라 한다.

(2교시)J_stJo01_030917_02

◎ 12연기(緣起)

붓다의 깨달음은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인과율의 법칙, 즉 12연기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련되어 성립하므로 이들 원인이나 조건이 없다면 자연히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같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실체는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 그것을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현상 사이의 법칙을 꿰뚫어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명(明이)라 한다. 그리고 명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무명(無明)이다.



無明(무명): 과거의 업으로 인해 그냥 주어진 것으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行(행): 과거행위 즉, 마음 작용의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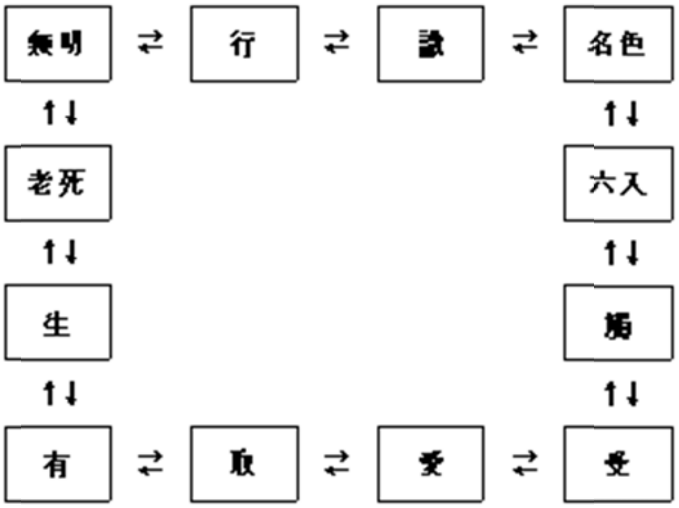
識(식): 업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인데 과거의 行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인식작용.

名色(명색): 識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정신적인 것(名)과 물질적인 것(色)의 인식대상이다.

六入(육입): 여섯 가지 인식기관.

觸(촉): 많은 대상 중에 선택되어 감각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작용으로 판단 이전의 지각.

受(수): 觸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즐거움', '괴로움',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



닌 중간 느낌'의 3가지 반응)이지 판단작용은 아니다.

愛(애): 이 단계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愛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取(취): 愛로 인해 마음에 생기는 올바르지 못한 집착.

有(유): 욕망이 구체화되는 단계

生(생): 有로 인해 구체화된 욕망이 완전히 생성되는 것.

老死(노사): 이 단계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苦(고)를 말한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죽으면서 이번 생에서 자신이 겪지 않고 남은 업으로 인해 다시 無名이 시작되는 것이다.

◎ 12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12연기의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

12연기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은 욕망의 원인이 생기기 이전 단계인 受의 단계에서이다.

◎ 定 과 慧

불교에선 계율을 지키는 것 외에 **定, 즉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차림으로써 受에서 愛로 넘어가기 전, 욕망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려 할 때 그 싹을 제거하는 방법을 중시한다. 당시의 인도종교들 중에는 定을 통해 얻게 되는 신비한 경험에 목적을 둔 종교가 많이 있었지만 불교는 定의 신비한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慧(지혜)**를 갖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혜를 갖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번뇌의 뿌리인 無名을 없애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를 가지고 無名을 없애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3교시)J_stJo01_030917_03

◎ 깨닫는다는 것의 현대적 의미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신비한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깨달음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깨닫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무의식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삼독(三毒)

삼독이란 다른 말로 삼혹이라고 하며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3가지를 말한다. 즉 탐(貪, 탐욕)·진(瞋,미움)·치(癡, 어리석음)를 말하며 이 세 가지를 버리고 나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지혜를 얻으면 12연기의 사슬이 모두 끊어져버리나?

지혜를 얻으면 무명이 없어지지만 윤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붓다가 그랬듯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게 되며, 육신을 가진 이상 욕망을 가진다. 다만 지혜를 얻으면, 더 이상 **맹목적인 욕망이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 돈오(頓悟):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깨달음은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고 '頓悟(돈오)'라 하여 한 순간에 이루어지며 세세한 것을 깨닫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에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경험은 독일 철학의 '초월'의 개념과 비슷하며 불교만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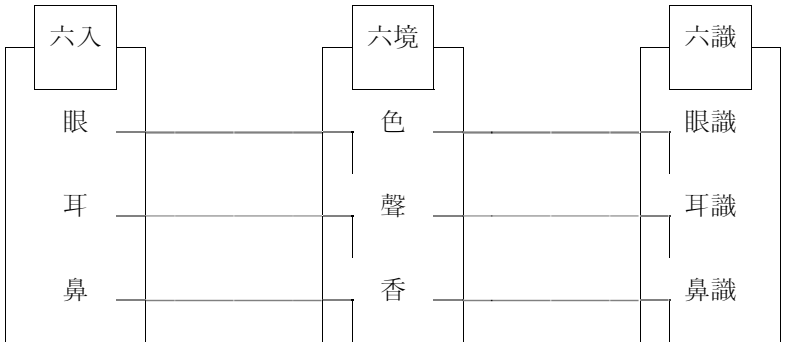
제5강 오온과 12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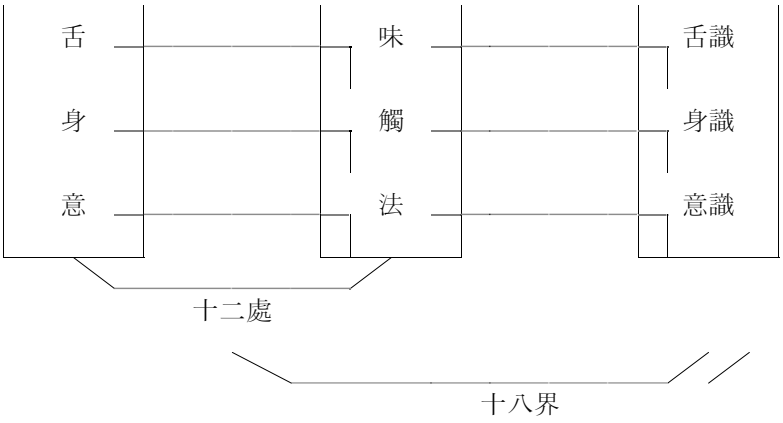
98학번 철학과 Y학생

◎ <u>五蘊(오온)</u>

△ '五蘊(오온)'은 인간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色', '受', '想', '行', '識'으로 나눠 '해체'의 관점에서 인간경험을 분석한 것인데 매 순간, 찰나마다 오온이 이루어졌다 사라지고 바로 다음 순간 새로운 오온이 이루어진다.

△ 인간은 나면서부터 5가지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인 5가지 감각기관에 마음(mind)을 더하여 '六入('眼(안)', '耳(이)', '鼻(비)', '舌(설)', '身(신)', '意(의)')'을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六入이란 말 그대로 6가지 입구란 의미인데 6가지 입구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六入의 다른 표현으로는 '六根(육근)'이 있는데 이것은 六入을 우리의 인식경험의 기본적인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6入을 통해 들어오는 대상들을 '六境('色(색)', '聲(성)', '香(향)', '味(미)', '觸(촉)', '法(법, dharma)')'이라 했다. 境(경)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六入을 통해서 6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대상의 경계'란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六入과 六境을 합쳐서 '十二處'라고 한다. '處'라 함도 감각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에서이다. 불교에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一切'라는 개념도 바로 '十二處'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六入을 통해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각각의 入에서 '眼識(안식)', '耳識(이식)', '鼻識(비식)', '舌識(설식)', '身識(신식)', '意識(의식)'이 생기는데 이것을 六識이라 한다. 그리고 '六入', '六境', '六處'를 모두 합하여 '十八界'라 한다.





△ 불교에서 윤회사상을 말할 때 '無我(무아)'의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我'가 없는데 무엇이 다음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것은 我가 아닌 識이 윤회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識은 기독교와 같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이 아니다. 識이 영혼이 아닌 이유는 識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入과 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識이란 것은 入과 境과 識의 화합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윤회한다고 하는 識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영혼'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 12緣起(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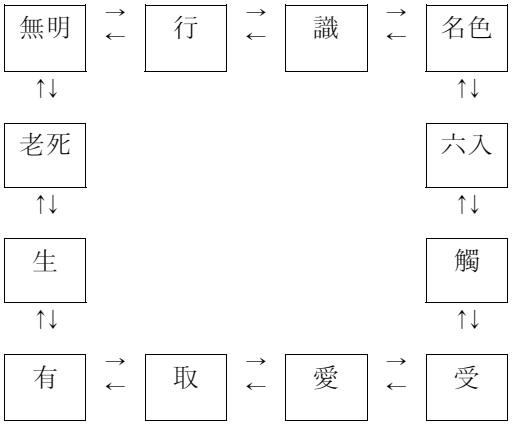
△ '五蘊'은 한 순간의 경험을 분석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경험'을 시간순서에 따라 분석한 것이 '12緣起(연기)'이다. 불교경전에 정확히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불교전통에선 붓다(Buddha)가 최초로 깨달은 내용이 바로 12緣起라 믿고 있다.

"緣起의 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如來(여래)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이 법은 常住(상주)요, 法住(법주)요, 法界(법계)이니라. 如來는 다만 이 법을 자각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들에게 說하나니,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生함으로써 저것이 生한다. 즉 無明을 연하여 行이 있고, 내지 하나의 커다란 苦蘊(고온)의 集(집)이 있게 된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滅하므로 行이 멸하고 내지 하나의 커다란 苦蘊의 滅이 있게 된다."

12緣起는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갖게 되고 그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 붓다의 깨달음은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인과율의 법칙, 즉 12緣起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련되어 성립하므로 이들 원인이나 조건이 없다면 자연히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같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실체는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 그것을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붓다가 깨달은 것인데 이러한 현상과 현상 사이의 법칙을 꿰뚫어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明(명)이라 한다. 그리고 明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無明(무명)이다.

△ '無明(무명)'은 과거의 業(업)으로 인해 그냥 주어진 것으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行(행)'은 과거행위 즉, 마음작용의 업이다. '識(식)'도 업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인데 과거의 行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인식작용이다. '名色(명색)'은 識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정신적인 것(名)과 물질적인 것(色)의 인식대상이다. '六入(육입)'은 앞서 말한대로 여섯가지 인식기관이다. '觸(촉)'은 많은 대상 중에 선택되어 감각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작용으로 판단이전의 지각이다. '受(수)'는 觸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 ('즐거움', '괴로움',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중간 느낌'의 3가지 반응)이지 受 역시 판단작용은 아니다. '愛(애)'의 단계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愛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取(취)'는 愛로 인해 마음에 생기는 올바르지 못한 집착이다. '有(유)'는 욕망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고, '生(생)'은 有로 인해 구체화된 욕망이 완전히 생성되는 것이다. '老死(노사)'의 단계는 인생에서 겪게되는 苦(고)를 말한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죽으면서 이번 생에서 자신이 겪지 않고 남은 업으로 인해 다시 無名이 시작되는 것이다.



△ 12緣起의 요는 無明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사라는 중생의 괴로운 존재 방식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生死의 근본적인 극복은 無明의 멸진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경전에는 無明에서 生死의 발생과정을 설한 다음에는 반드시 無明의 멸에서 生死의 멸

을 설하고 있다. "무명이 멸하므로 행이 멸하고 내지 하나의 커다란 苦蘊(고온)의 멸이 있게 된다."《잡아함 권12》 이상과 같은 내용의 교설을 12緣起說이라고 부른다.

△ 이러한 12緣起의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데, (12緣起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틀이다) 12緣起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은 욕망의 원인이 생기기 이전 단계인 受의 단계에서이다. 이것은 종교적 계율들을 지킴으로써 受에서 愛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욕망을 참는 것은 한편으로는 언제든 다시금 그 욕망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자란 상태에서 그것을 억누르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선 계율을 지키는 것 외에 '定(정)'을 통해, 즉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차림으로써 受에서 愛로 넘어가기 전, 욕망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려 할 때 그 싹을 제거하는 방법을 중시한다. 물론 이 때에도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단지 定을 통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계율을 통해 억제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定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불교의 목적은 定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시의 인도종교들 중에는 定을 통해 얻게 되는 신비한 경험에 목적을 둔 종교가 많이 있었지만 불교는 定의 신비한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지혜(慧)'를 갖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혜를 갖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번뇌의 뿌리인 無名을 없애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를 가지고 無名을 없애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명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깨닫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고 '頓悟(돈오)'라 하여 한 순간에 이루어지며 세세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에 알게 되는 것이다.

△ 12緣起說은 초기 경전에 說해진 가장 심오한 법문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說해진 여러 가지 법문을 하나로 종합하고 체계화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우선 그 지분의 조직만 보더라도 五蘊, 十二處, 生死 등의 여러 가지 법이 그 속에 하나로 짜여 있으며, 緣起라는 발생법에는 인과, 인연 등의 모든 불교적 개념이 포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사항]

☞ 저는 종교로써의 불교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에서도 타종교에서와 같은 인격이 있는 절대적인 유일신은 아니지만 '神'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神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깨달음을 통해 지혜

를 갖게 된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죽은 후에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